

담양군 귀농귀촌 도우미 '귀농닥터' 12명 선정

작목 선택·주택 정보·재배기술
예비 귀농인 5차례 무료 수업
지난해 참가 4명 모두 귀농 결정



담양군이 '귀농 닥터'를 운영하며 귀농인들에 각종 귀농 정보와 경험을 제공한다. 귀농 닥터가 예비 귀농인을 상담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선배 농업인의 기술을 배우고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귀농 닥터' 사업을 3년째 추진하고 있다.

담양군은 올해 귀농 닥터로 나설 농업인 12명을 선정하고, 오는 11월까지 예비 귀농인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귀농 닥터는 귀농·귀촌인이 농업 현장의 생생한 정보와 지식을 얻고, 귀농 초기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이 사업을 3년째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귀농 닥터'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2021년부터 100% 군비 사업(연간 500만원)으로 해마다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선배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수업비(한 차례당 10만원)로 쓰인다.

귀농 닥터는 담양군 귀농귀촌협의회 회장의 추천을 받은 회원들로 구성됐다.

지원 분야는 농촌생활, 농지주택 정보제공, 작목선택, 재배기술, 농산물가공, 유통 등이다. 귀농 닥터들은 고소득 작물로 꼽히는 새싹삼과 딸기, 쌀 등 다양한 작목 농사를 짓고 있다. 참가자들은 귀농 닥터 농장을 찾아가거나 자신의 농장에서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담양군은 올해 11월까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나 농촌 거주 1년 미만의 귀농·귀촌인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읍·면 농업인 상담소나 담양군 농업기술센터로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통계청 '귀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담양지역에는 94명이 귀농하고, 1858명이 귀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담양 귀농인 가운데 50대가 27명(28.7%)으로 가장 많았고, 60대(26명), 30대 이하(19명), 40대(15명), 70대 이상(7명) 등이 뒤를 이었다.

담양=한홍준 기자 hhdh@kwangju.co.kr

장흥군 정남진 물축제 통역 담당자 9명 위촉



'16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7월29일-8월6일) 개최를 앞두고 장흥군이 9명의 통역 담당자를 위촉했다. <사진>

장흥군은 최근 군청 회의실에서 '장흥군민 통역 서포터즈' 위촉식을 열었다. 통역자에는 일본어, 베트남어 등을 말하는 다문화 여성 등 9명이 임명됐다. 이들 통역 대원은 지역 행사와 축제를 열 때 외빈을 맞이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통역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 열리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100만 관광객 방문을 목표로 개최 준비를 하고 있다. 행사 기간 필리핀 실랑시 대표단도 축제장을 찾는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군민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국제도시와 우호 협약을 맺고 있는 만큼, 외국인의 방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흥군이 세계 다양한 지역과 교류하는 데 교두보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군, 상수도 유수율 94.5% 전국 최고

"생산원가 7억원 절감 효과"

강진군이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협력단과 함께 추진해 온 '강진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환경부 산하 성과관정위원회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에서 진행된 성과관정위원회에서 강진군은 최종 평가 결과 94.5%의 유수율로 현재까지 완료된 현대화사업 중 전국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이 최종 소비자인 수용가까지 도달하는 비율이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농어촌지역 상수도 관망의 심각한 누수율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국책사업으로, 전남도에서는 총 20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중 강진군을 포함한 8개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추진 중이다.

강진군은 2018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195억

8400만원을 투입해 사업 대상 지역인 강진읍과 병영면 노후 상수도 관망 25.6km를 정비하고 블록 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를 통해 사업 전 64.8%에 불과했던 유수율은 2023년 7월 현재 94.5%를 달성했고, 연간 61만톤의 수돗물(생산원가 약 7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군은 노후 상수관로 정비와 함께 올해 초부터 발생했던 읍내 탁수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5월 대규모 수용가(아파트, 상가 등) 밀집 지역의 노후 상수관로를 세척해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왔다.

강진군은 향후 노후 상수관로 정비, 정밀여과장치의 추가 설치와 함께 이반에 뚜렷한 효과가 입증된 관세척 작업을 병행하는 등 꾸준한 조치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반을 출동시켜 신속 대처할 계획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나주시, 중고생 연 1회 '무료 치아 스케일링'

나주시가 여름방학을 이용해 중고생에게 무료 스케일링을 비롯한 구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 스케일링은 반드시 사전예약 후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보건소2동 구강진료실(2층)을 방문하면 된다.

대상은 2006~2010년 사이 출생한 18세 미만 중고생으로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을 지참해야 한다. 무료 서비스는 유치나 영구치 우식에 따른 치아 통증, 조기 치은염, 급성치주질환 예방 등 청소년

기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민선 8기 신규 시책으로 발굴됐다.

보건소는 스케일링과 더불어 올바른 양치와 구강용품 사용 방법, 불소양치용액 배부 등 1대1 맞춤형 구강보건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나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방학기간 무료 스케일링을 통해 구강질환을 조기에 예방, 치료하고 건강한 학업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의회가 최근 개최한 의정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나주 교육 현황과 미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나주시의회 제공>

교육지원센터 역할과 나주미래교육 모색

나주시의회 학생·교사 토론회

나주시의회가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개소에 맞춰 학생·교사와 토론회를 열었다.

나주시의회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나주 교육 현황과 미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놓고 다섯 번째 의정토론회를 열었다.

행사는 이상민 시의회의장과 나주시 교육장, 시민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박성은 나주시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고, 조연우 나주시 학생과 최은숙 나주시 학부모연합회 회장, 변정빈 반남중학교 교장, 주문희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청중들과 대화를 나누며 토론을

이어갔다. 지역 중·고등학생들이 보낸 질문 영상을 보고 답하기도 했다. 이들은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가 학생들의 휴식처 같은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변정빈 반남중 교장은 "미래교육지원센터가 나주 교육의 협치를 끌어내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은 의원은 "나주교육의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하고, 미래교육지원센터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교육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학교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지역과 협력해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